

합동차례 지내는 설날이면 2000여명 복적이신 진관사

“공양주야, 가래떡은 방앗간에서 뽑아 놓았느냐?”, “다시마 감자부각은 비삭하게 했나?” “녹두전 맛나게 하려면 녹두는 미리 갈아놓지 말아야 한다”... 설날 사흘 전이면 서울 진관사 후원은 스님과 공양주 손놀림에 눈코 뜰 새 없다. 보통 일가족 20~30명의 차례상 한상차림도 만만치 않은 법인데, 합동차례 300여가구면 오는 사람만도 2000여명에 달한다. 고사리와 도라지는 기본이고, 더덕과 잡채, 다시마와 감자부각, 김구이 녹두전 느타리전 표고전 호박전 배추전까지... 차례상에 올리는 진수만도 열두가지가 넘는다.



합동차례를 지내는 설날에는 하루종일 2000여명의 사람들이 가족단위로 진관사를 찾는다. 진관사 주지 계호스님은 설날을 열흘 앞둔 지난 1월29일 명부전 위패부터 정돈하면서 합동차례를 준비했다.

진관사 주지 계호스님과 총무 법해스님의 정성과 손맛이 오롯이 담겨 있는 진수성찬에, 설날마다 조상님과 부모님을 진관사에 모시려는 이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합동차례에 고인을 모시면 정성이 부족하거나 불효를 한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돼버렸다. 사찰 특유의 정갈한 전통음식과 함께 고즈넉한 산사에서 올리

대웅전 비롯한 전각 모두 개방
전각별 5~6명씩 전담팀 봉사
고향집 친누나 친언니 같은
스님들 축원 정성에 감동물결

‘먹는 데 평등해야 法도 평등’
은사 스님 가르침 오롯이 계승

는 차례는 격이 다르다. 조선시대 서방안락국을 발원한 국행수륙도량의 남다른 전통과 예식이 고스란히 계승돼온 진관사의 합동차례는 조상을 추모하고 섬기는 차례 고유의 뜻을 뛰어넘어 10여 년째 주지로 살면서 자비나눔 보살행 실천에 앞장서온 계호스님의 원력에 힘입어 새로운 형태의 신행문화축제로 변모하고 있다. “말도 마요. 합동차례를 지내는 설날 하루에는 가족 단위로 진관사를 찾아오는 이들이 넘쳐나서 대웅전 명부전 함월당 향적당 할 것 없이 도량 전체를 개방합니다. 전각별로 진수를 올리고 내리는 역할을 소인별로 나눠서 5~6명씩 전담팀을 뒀요. 하루종일 절마당에선 아가시아 차를 ‘무한리필’하고 식혜와 수정과도 곳곳에서 즐길 수 있도록 배치합니다.”

지난 1월29일 설날을 열흘 앞두고 만난 주지 스님이 설날 풍경을 설명해주자, 이번에는 총무 법해스님은 주지 스님의 한량없는 자비행이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고 덧붙혔다. “절에 묵마르고 각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관사는 마음의 고향 같은 편안함을 주고 싶어요. 설날 가족들은 주지 스님이 고향집 친누나 친언니 같다

고 해요. 수많은 아이들이 주지 스님 방을 넘나들면서 놀기도 하고 우리가 준비해둔 과자와 초콜릿을 먹으면서 어찌나 즐거워하는지 몰라요.”

진관사 합동차례는 스님이 이름을 불러주면 가족별로 불단에 서서 사찰차례의식에 걸맞게 차 공양 올리고 저두례를 하고, 스님들이 정성껏 축원을 하는 형식이다. 합동차례라고 해서 ‘합동’으로 하고 ‘속성’으로 끝내는 법이 없다. 차례의식이 회향하면 또다시 음식축제다. 진관사표 떡국, 방앗간에서 직접 뽑은 가래떡으로 끓인 떡국도 별미고 스님들 손맛이 배인 만두도 일품이다. 이 맛에 설날 집에서 차례를 지낸 인근 은평뉴타운 주민들도 떡국 먹으러 부리나게 진관사를 찾는 진풍경도 벌어진다. 계호스님과 법해스님은 “세백년도 만만치 않게 나간다”고 하면서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못한다.

두 스님은 진관사의 이같은 합동차례 문화가 오래 전 은사 스님이 살았던 방식 그대로일 뿐이라고 전한다. 계호스님은 회고했다. “1960년대부터 은사 스님은 대웅전 명부전 나한전에서 천일기도 묵탁을 놓지 않았다. 한번 기도하면 네댓 시간 불도 안 드시고 열불만 하셨다. 제사 때도 신도들 마음에 새기라고 모든 독경을 한글로 하셨고 음식에 쏟는 정성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신도를 부처님처럼 모신 은사 스님을 그대로 보고 싶었을 뿐이다.”

계호스님은 옛날 수록제를 앞두고 절에 찾아온 거지꼴 여자아이와 개 한 마리에게 똑같이 밥상을 세 개 차려줬던 일화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먹는데 평등해야 법(法)에도 평등한 법입니다. 설날 합동차례는 중생사망의 평등계를 실천하는 첫 단추입니다.”

하정은 기자 tomato77@bulgyo.com



일제 강제징용
해저탄광 희생자
‘극락왕생’ 염원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지난 1월30일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조세이 탄광 추모비 앞에서 ‘일제강점기 조세이탄광 강제동원 조선인 수몰희생자 위령제’를 봉행했다. 바다 밑에 만들어놓은 탄광에 바닷물이 들어닥쳐 경도에 있던 183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 중 70%가 넘는 136명이 조선인이었다. 사진은 위령제에 앞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한 종단 대표 스님들이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염원하는 뜻에서 해저탄광 붕괴사고가 일어났던 사고 해안가를 찾은 모습.

▶관련기사 4면
일본=홍다영 기자

100인 대중공사 ‘시즌 2’로 이어간다

대중공사 문화 저변확대 위해
중앙·지역으로 분산개최 ‘눈길’

참가 위원 공개모집도 관심
사부대중 공동체 실현 박차

종단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기여했다고 평가 받는 ‘종단혁신과 백년대계를 위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이하 100인 대중공사)’가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계속된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월25일 오후 진행된 ‘100인 대중공사’에 참가할 위원을 공개 모집하며 향후 일정을 공개했다.

올해 ‘100인 대중공사 시즌 2’는 대중공사 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해 중앙과 지역으로 분산

해 개최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중앙 100인 대중공사는 3월31일과 5월26일, 7월14일, 10월20일, 11월24일 등 총 5차례에 걸쳐 서울에서 열린다. 지역별 대중공사는 권역별로 지역 및 본사에서 개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의제는 대중공사를 통해 중점의제 2개(단기과제, 근본과제)와 현안 의제를 선정한다. 특히 중점의제의 경우 ‘의제위원회’를 구성해 1년 동안 상시적인 논의를 진행해 결과를 도출한다는 점이 새롭게 바뀌었다.

100인 대중공사에서 논의될 의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3월말에 열리는 첫 대중공사에서 참가대중의 의견을 수렴해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100인 대중공사 공동추진위원장 노법스님(조계종 화쟁위원장)은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중도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과 관련 사부대중공동체의 실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한다”는 입

장을 피력했다. 또한 지난해와 같이 종단의 민감한 현안 해결에도 힘을 전망이다. 100인 대중공사 추진위는 1월25일 동국대와 용주사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100인 대중공사 추진위는 1월25일 100인 대중공사 위원 동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사부대중이 주체가 되어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한 대중공의를 수렴하고 평등하고 적극적인 토론 참여를 통해 사부대중 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위원 구성은 먼저 지역을 대표하는 교구본사 추천위원의 신청을 받고, 출제가 각 영역을 대표하는 무분별 추천 위원을 추가로 구성한다. 여기에 자발적 위원 동참 신청을 받아 추진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한다. 동참 신청서는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장영성 기자 fuel@bulgyo.com

1급 승가고시 4월11일 시행

조계종 고시위원회(위원장 지안스님)는 오는 4월11일 오후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1급 승가고시를 치른다. 지난해 면접을 통해 종덕, 헌덕 법계 수지 후 활동계획을 점검했던 것과 달리 올해부터는 응시자 스님들이 제출한 종단발전 방안에 대한 제안서를 토대로 한 심층면접이 진행된다. 제안서는 종단의 역할과 발전에 대한 계획서로, 포교 수행 교육 등 관심분야를 자유롭게 선택해 현 제도의 문

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서술하면 된다.

1급 승가고시에 응시할 스님들은 2010년과 2011년에 2급 승가고시에 합격해 비구 대덕, 비구니 해덕 법계를 수지하고 5년 이상 경과한 스님으로, ‘종단 지도자과정’ 법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응시원서는 (www.buddhism.or.kr)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수행 및 교회활동 이력서와 증빙자료, 종덕, 헌덕 법계 수지 후 활동계획서와 제안서를 함께 작성해 3월27일부터 4월18일까지 재직 교구본사로 제출하면 된다.

어현경 기자 eonaldo@bulgyo.com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불사 기금모연**

- ARS(전화)모연 : 060-700-1027
- 문자모연 : #2540-1027로 문자메시지 전송 (문자메시지 장에 사할명 또는 개인이름 입력)
- 모연계좌 : 농협 301-0160-9713-71 (재)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 모연문의 : 조계종총본산 성역화불사 추진위원회 02-730-6690

대만-한국 대학생 템플스테이 5면

겨울철 눈폭탄, 밴트랙 제설기로 걱정 끝!

저희 밴트랙은 경사가 심한 사찰 진입로, 주차장 제설에 꼭 필요한 제설기입니다.

사찰에서 직접 사용해 보시고 결정하셔도 됩니다.

무료 데모시연회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HP 가솔린 트랙터 4500P



22HP 디젤 트랙터 3400Y



제설 브러쉬 HB580



스노우 블로워 KX523



도저 블레이드 KD722



V-블레이드 KV552



연화칼슘살포기 SA250



연화칼슘살포기 SS7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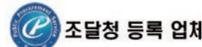


(주)밴트랙 코리아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공단로 62 나동
TEL : 033)746-3999 FAX : 033)746-3357 E-Mail : ventrac@hanmail.net



QR코드로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공단로 62 나동



조달청 등록 업체 한국골프대학 협력 업체

보다 자세한 제품의 정보는 WWW.VENTRAC.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